

# ART BUSAN

15  
ART BUSAN  
15 YEARS

Lead Partner  
Hana Financial Group

VIP PREVIEW  
May 21

May 22–24, 2026 BEXCO

GALLERY  
SERENE  
SPACE

Booth NO.

A – 12

# ART BUSAN



Booth NO.

**A – 12**

## 2026 ART BUSAN | GALLERY SERENE SPACE



ART BUSAN SCHEDULE



ART BUSAN FLOW MAP



GALLERY SERENE SPACE

# ART BUSAN SCHEDULE

---

MAY 21 (Thu)

MAY 22 (Fri)

MAY 23 (Sat)

MAY 24 (Sun)

---



VIP/Preview/Press

**14:00-19:00**

일반

**11:00-19:00**

일반

**11:00-19:00**

일반

**11:00-18:00**

---

# ART BUSAN FLOW MAP



라운지

라운지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  
Booth No. A-12

입구

출구

## Artist

CHO KWANG HUN

KANG JUN YOUNG

WANG HYUN MIN

***Elephant nose***

130 x 130 x 480 (mm)

Ceramics

2025





***Elephant nose***

130 x 130 x 480 (mm)

Ceramics

2025

***Two chimneys 120525***

400 x 200 x 750 (mm)

Ceramics

2025



\*해당 작품은 참고용이며, 옷 컬러와 장식이 변형된 동일 작품으로 출품됩니다.

해당 작품 문의 가능합니다.



**Choke 051326**

260x340x74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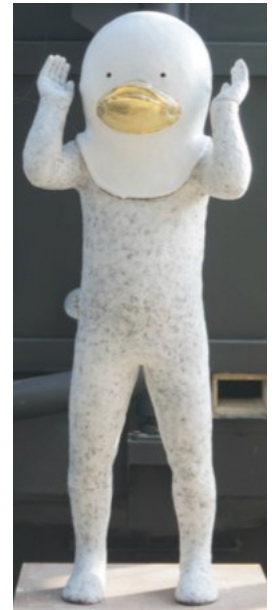
Ceramic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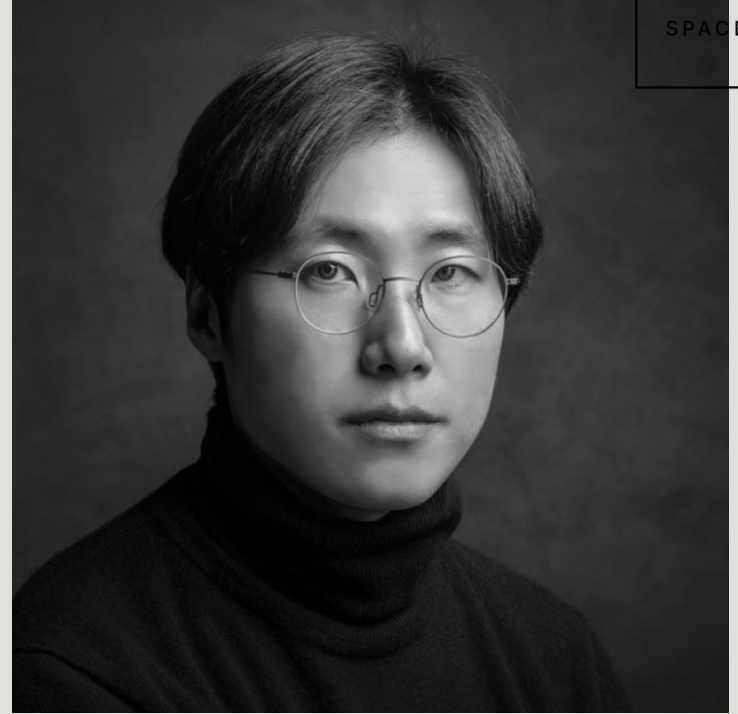
**바람을 듣는 소년**

340 x 350 x 1000 (mm)  
Ceramic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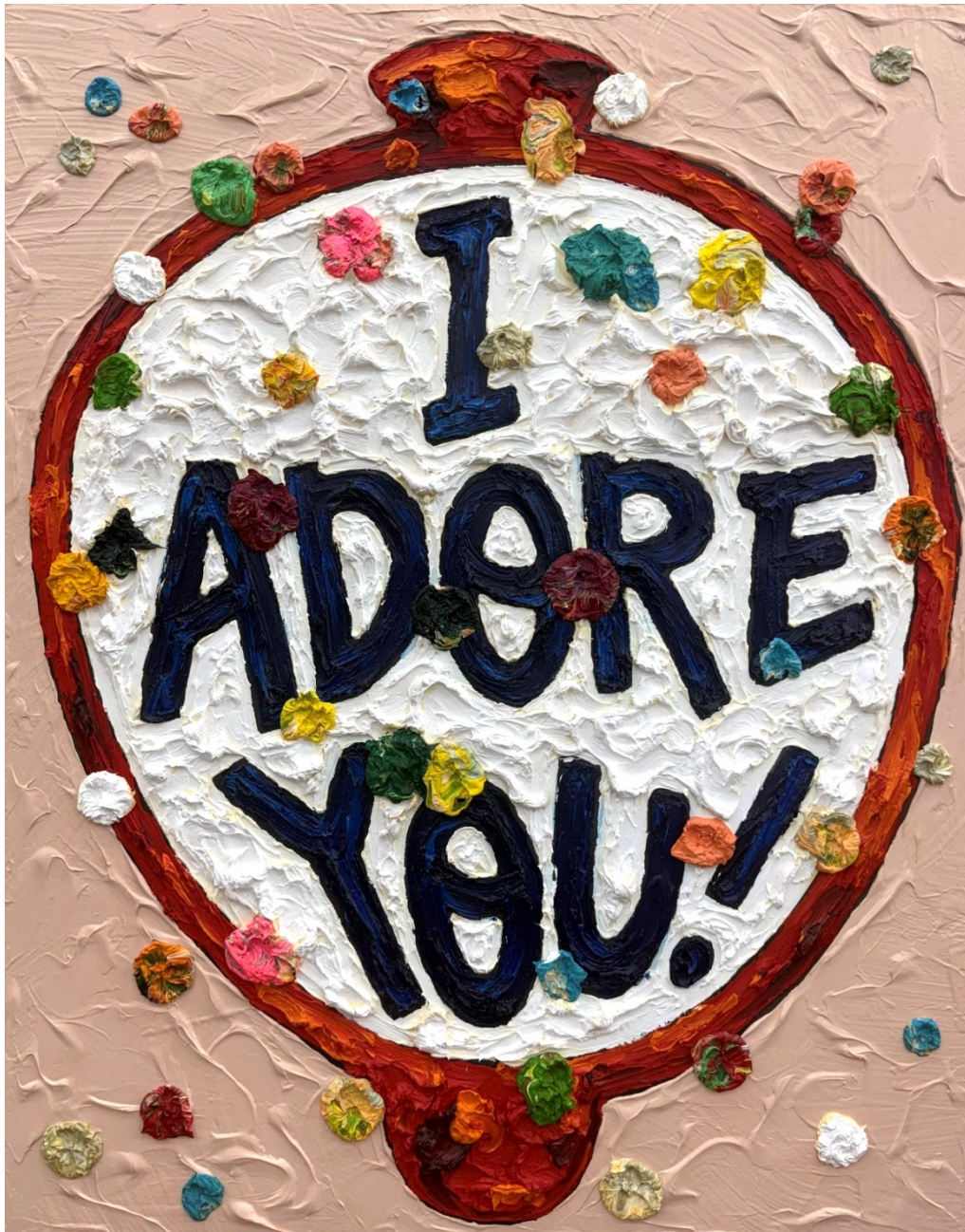
# Cho Kwanghun

GALLERY  
SEREN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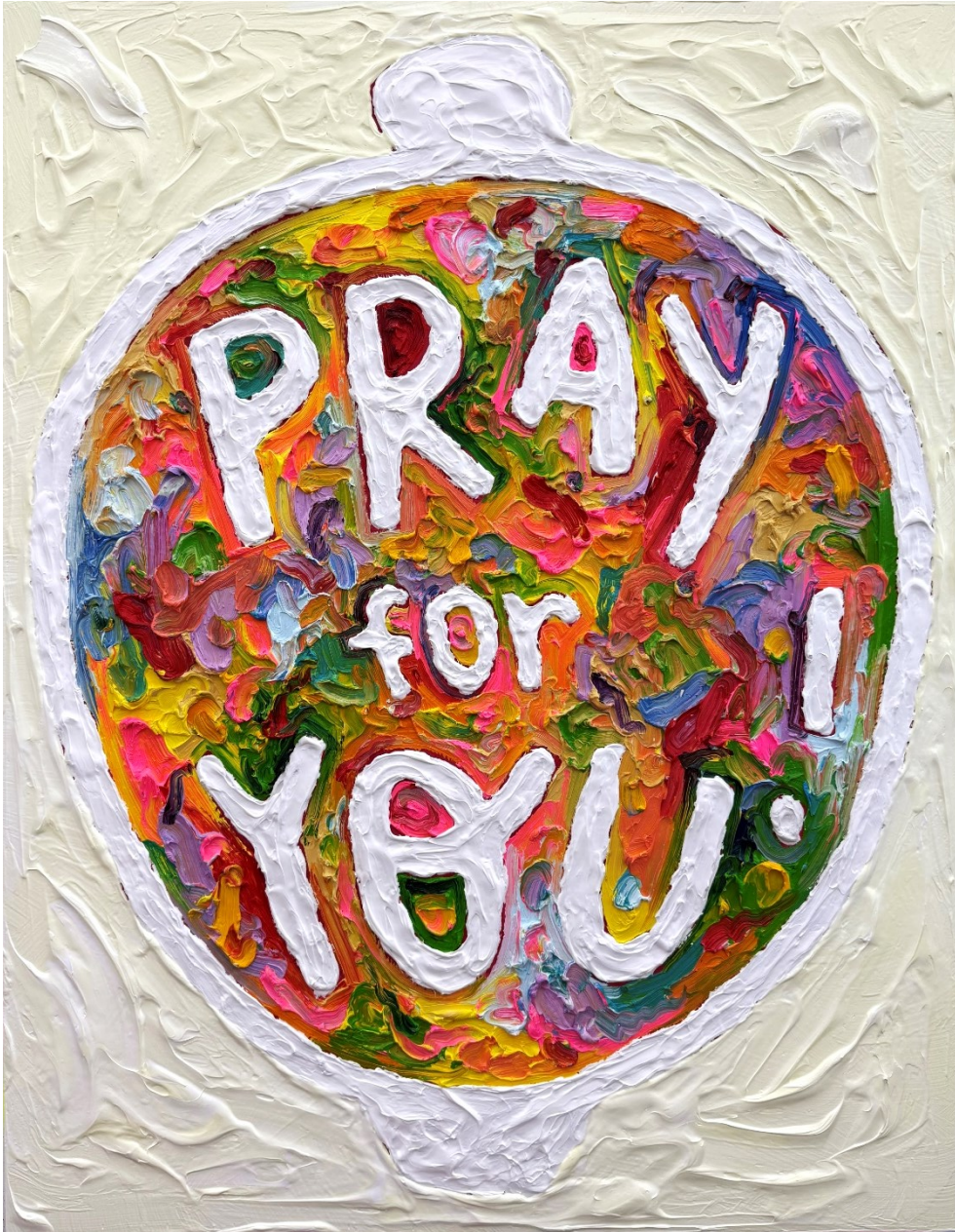
조광훈(B.1985) 작가는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도자전공,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했다.《Observer》,한국공예관,청주,2023, 《Ordinarydreams》,아트링크갤러리,서울,2019, 《MEDITATORS》,조은숙갤러리,서울, 2018, 《PUNISHMENT》DURUARTS PACE,서울, 2016 개인전을 가졌으며 《정중동:드러나는한국미의정신》,시가라키도예의숲미술관,시가라키,일본 2022, 《혼행일치》,한국공예관,청주, 2022, 그 외 국내외 25번의 단체전을 활동을 가졌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센터퀵스W에 부산에서 최초로 세라믹의 주재료의 한계를 넘어서 브론즈를 활용한 대형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작가는 계속해서 독창성을 추구하고 예술적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작가 조광훈은 코일링 기법을 활용하여 흙 반죽을 길쭉하게 늘리고, 아래에서부터 쌓아가며 독특한 형태의 작품을 창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속이 비어 있는 독특한 완성품이 탄생한다. 작가는 산책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거나 아이와 놀면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나 특이한 포즈에서 영감을 받는다. 또한 작가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과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이상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아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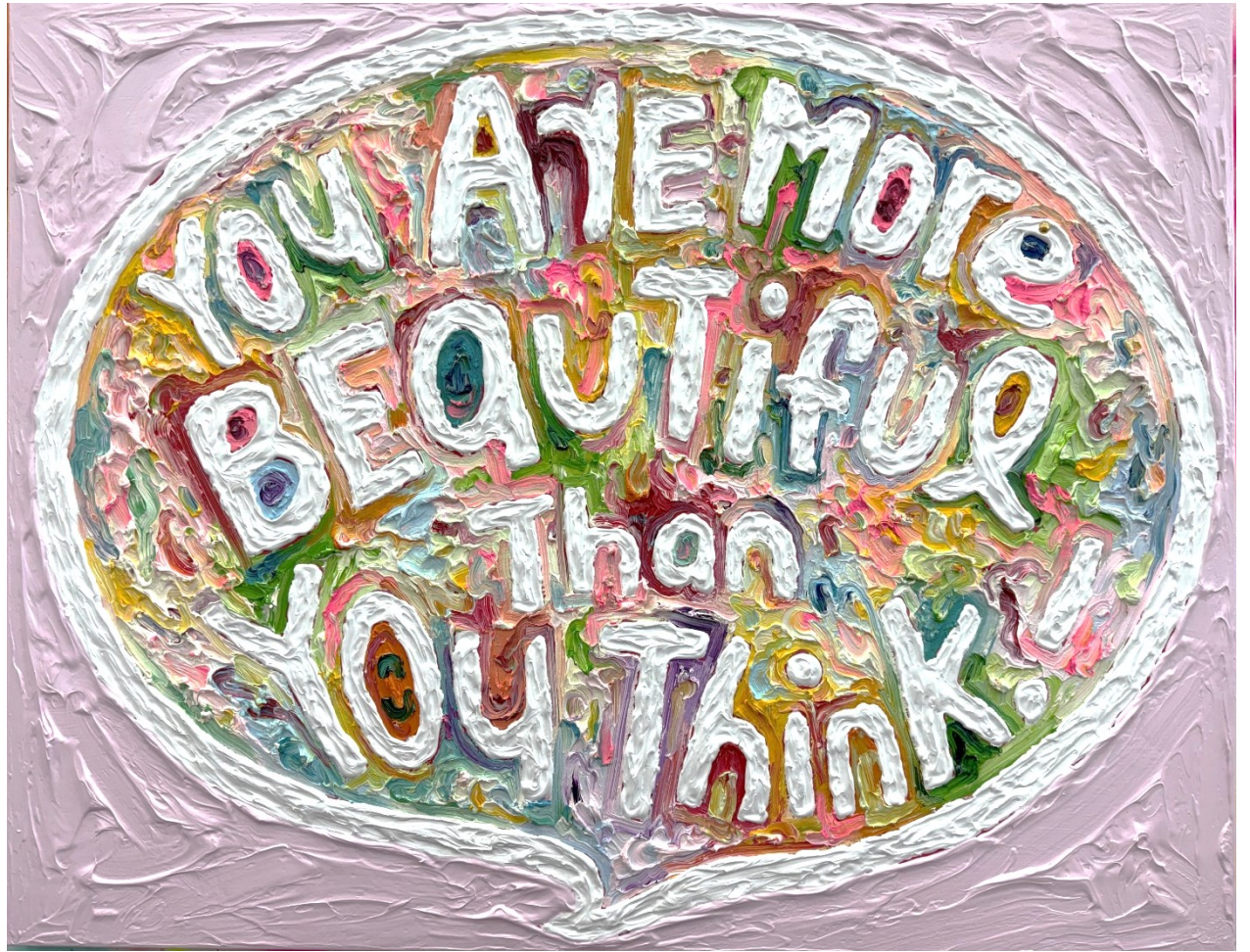
**눈이 올 때 우리 다시 만나요**  
**(I Adore You!)**  
***Moon jar series***

116 x 91 (cm)  
Oil painting on wood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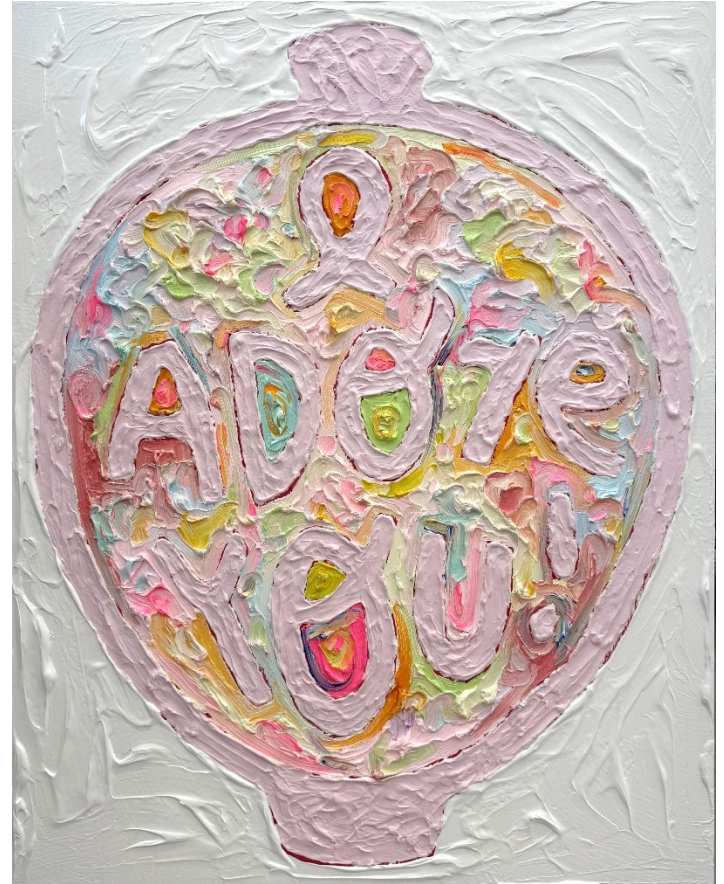
*"O"와"X"그리고 "우리"*  
*(Pray forYou!)*  
*Moon jar series*

116 x 91 (cm)  
Oil painting on canvas  
2026



***“O”와“X”그리고 “우리”***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Speech bubble series***

91 x 116 (cm)  
Oil painting on canvas  
2026



**“O”와“X”그리고 “우리”**

***(I adore you!)***

***Moon jar series***

91 x 72 (cm)

Oil painting on canvas

2026



**“O”와“X”그리고 “우리”**  
***Flower series***

53 x 45 (cm)  
Oil painting on canvas  
2023



***“O”와“X”그리고 “우리”***  
***Flower series***

22 x 27 (cm)  
Oil painting on canvas  
2025



**“O”와“X”그리고 “우리”**  
***Flower series***

22 x 27 (cm)  
Oil painting on canvas  
2025

# Kang Junyoung

GALLERY  
SERENE  
SPACE

강준영(B.1979)작가는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했다. 아르코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전시공간에서 수십차례의 전시를 선보였고, 대만,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지역 뿐 아니라, 영국, 미국 등의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전시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Art Central HK 아트 센트럴 홍콩을 비롯 다양한 국제페어에도 참가해 아시아 미술인들에게 큰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현재 그의 작품은 한국 마사회, 국회의사당, 한향림 현대도자 미술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예, 페인팅, 설치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감성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한다. 작품들은 사랑, 희망, 가정과 같은 주제를 텍스트로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강렬한 색채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달항아리 작품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백자 달항아리와는 다른 미학을 갖추고 있으며, 힙합, 그래피티, 팝아트 영향을 받아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현대적이고 경쾌한 매력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작가는 긍정, 희망,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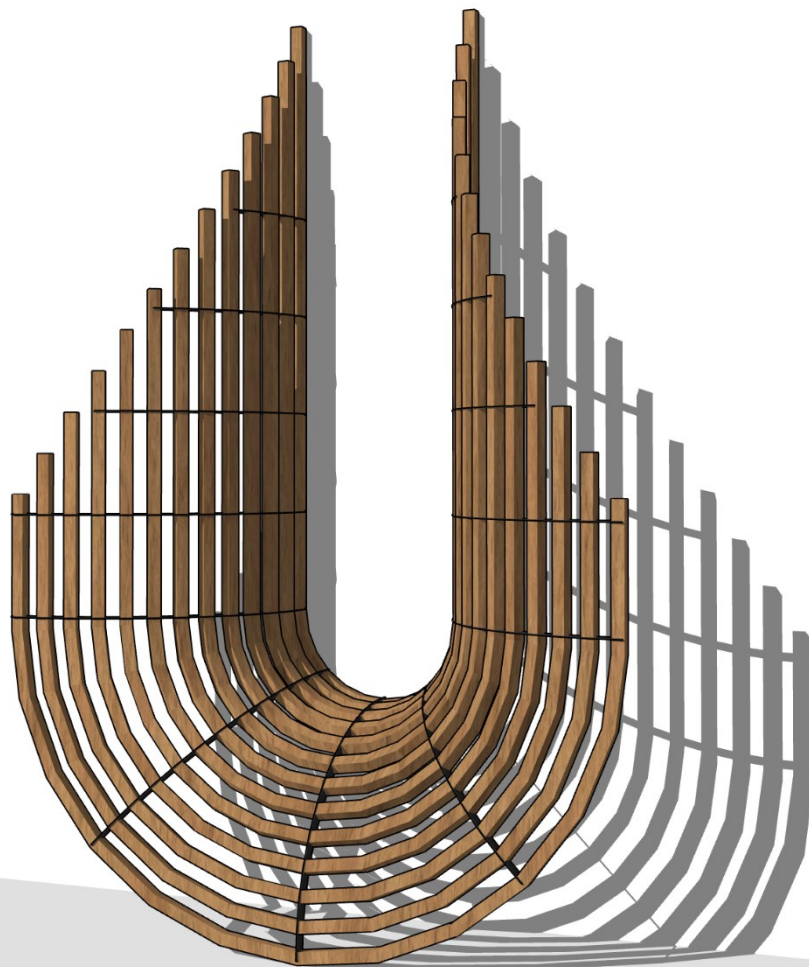


## *13 archs*

1530 x 550 x 2530 (mm)

Urethane finish o beech veneer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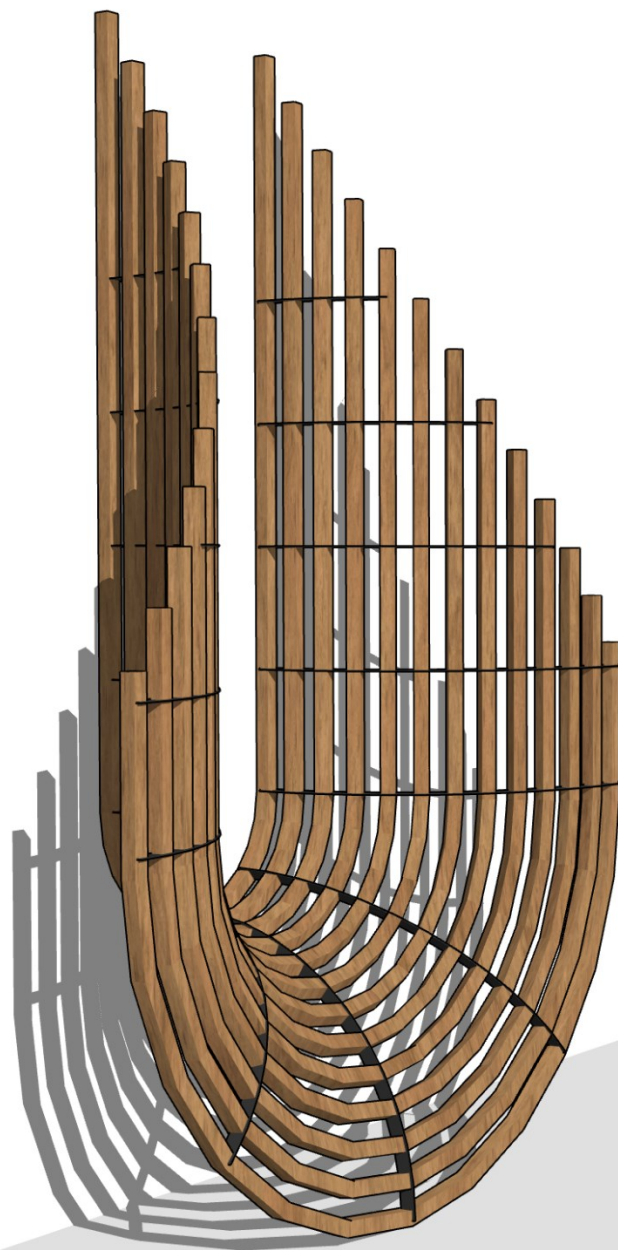


## *13 archs*

1530 x 550 x 2530 (mm)

Urethane finish o beech veneer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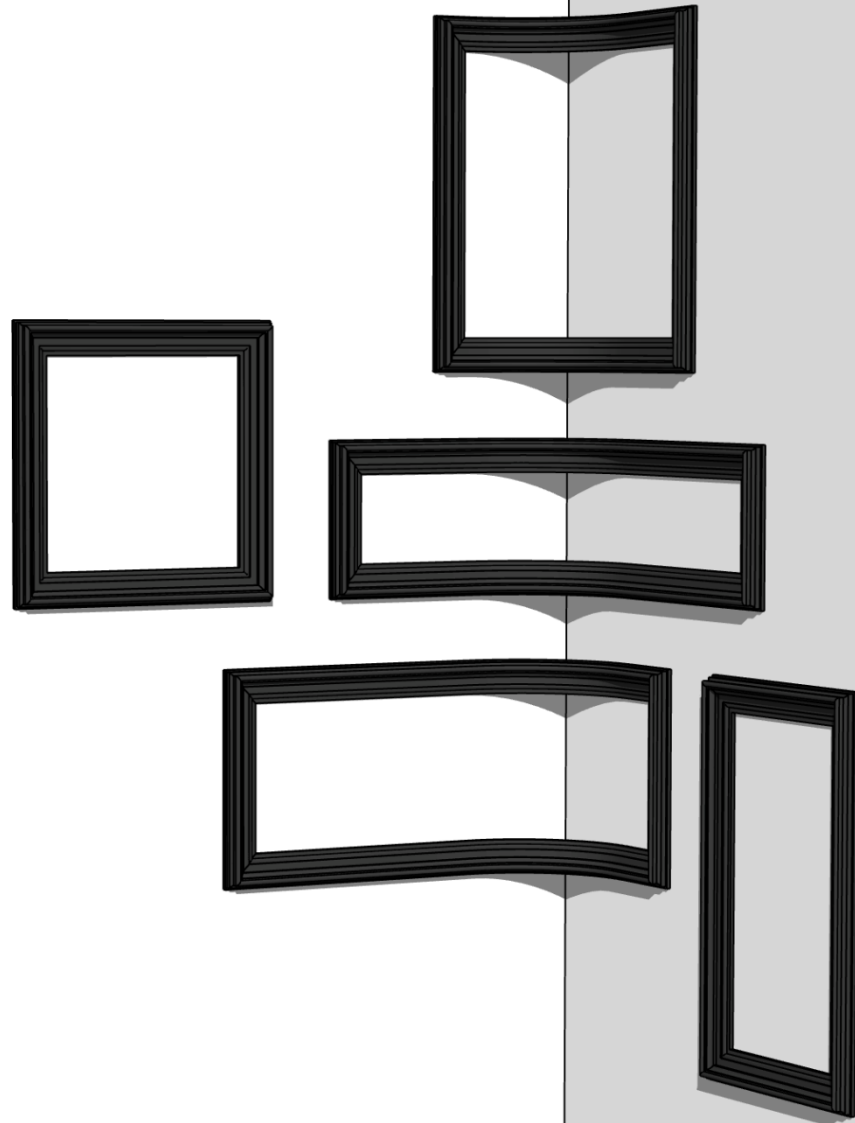


*distortion scene*

Variable dimensions

urethane finish on MDF, super mirror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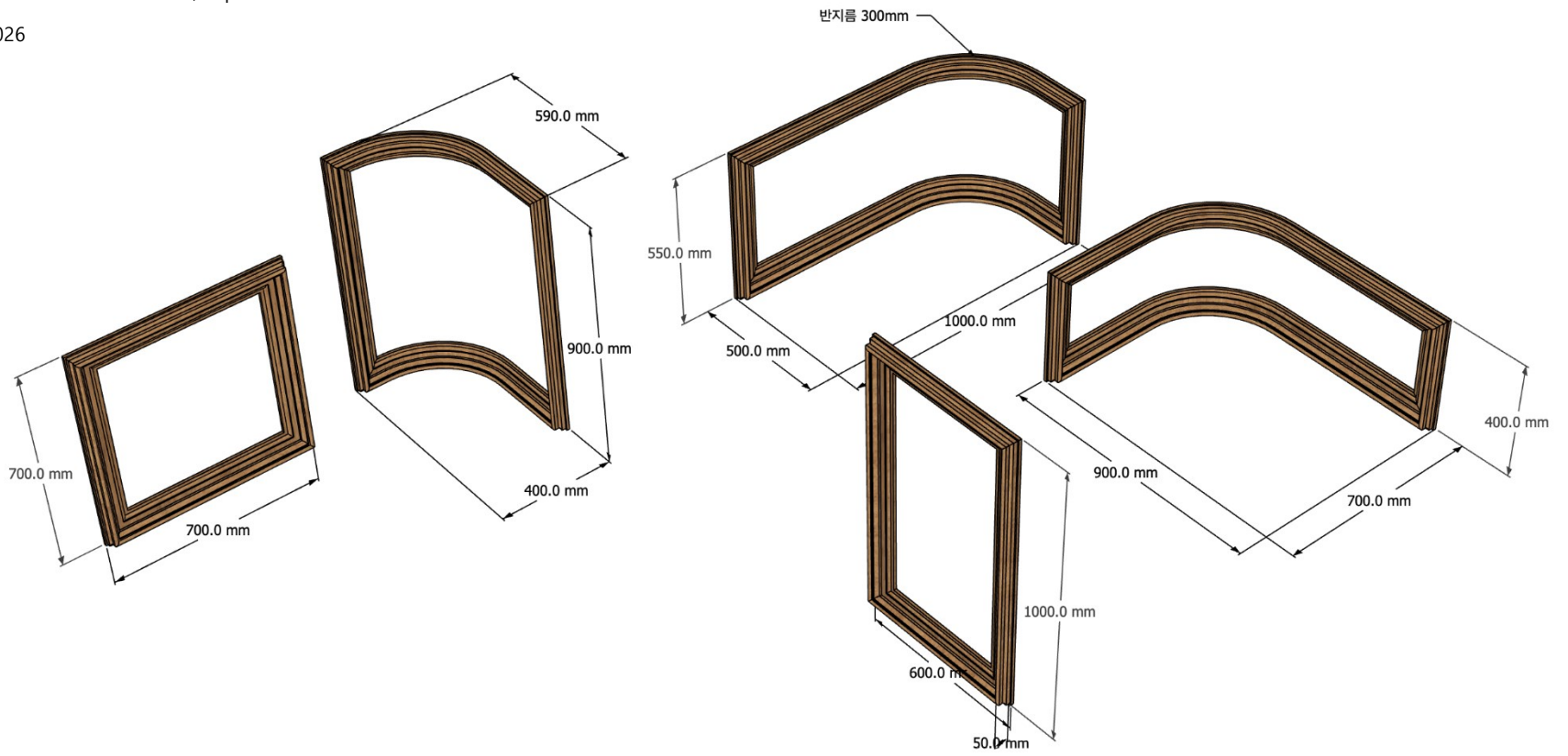


*distortion scene*

Variable dimensions

urethane finish on MDF, super mirror

2026



# Wang Hyunmin

GALLERY  
SERENE  
SPACE

왕현민(B.1984) 작가는 경성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와 동대학교 산업공예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현재는 홍익 대학교 공예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다. 그는 《구조 構造》 갤러리 서린스페이스 /부산 2023, 갤러리M/ 부산 2022,이외에도 국내에서 10번의 개인전과 44번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예술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Tods'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EOUL x BT S 서울관광홍보 2023 서울에디션에서도 협업에 참여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 왕현민의 작업은 건물의 골조에서 영감을 받아, 나무 스틱을 활용하여 벤치를 만들었다. 그는 나무 스틱의 길이를 조절해 구조적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입체적 곡선을 창조했다. 이러한 작품은 도형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름다움을 담아 내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있다. 왕현민은 작품을 통해 특정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모양을 찾아낸다. 그는 관람객에게 낯설지 않은 외형과 그 속의 숨은 구조를 통해 세상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